

다자협력을 활용한 북한 통계역량 개발

강우철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I. 문제제기
- II. 개발협력과 통계역량 강화
- III. 국제사회의 통계역량 의제의 변화
- IV. 북한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 V. 맺음말

〈요 약〉

본 고는 북한의 다자협력을 활용하여 통계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탐색으로서 개발협력과 통계역량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제개발협력에서 통계관련 주요 논의와 이니셔티브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통계는 개발협력 접근방법이 발전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의 부수적인 요소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협의체 출범, 자원조달 방안으로써 신탁기금 운용, 통계 역량 강화 관련 가이드라인 설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개도국은 국가통계발전전략(National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Statistics)을 도입하여 통계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 본 고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북한에 적용하려면 체제의 특수성, 정치적 민감도, 대북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북한의 통계역량 강화 방안으로써 개인, 조직, 제도의 차원에서 지식공유의 방향성과 주요 내용을 제안하였다. 북한의 통계역량 강화는 북한의 비핵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민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계역량 강화는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라는 단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정책설계,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포함한 민생경제 개선까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 문제제기

국가 운영에 있어 통계는 증거기반정책(evidence based policy)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는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은 2022년 5월 31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허풍방지법’을 제정하였다. 허풍방지법은 정책 집행과 인민생활 보호를 위해 관련 수치를 허위로 보고하는 ‘허풍’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도 통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통계가 자원 분배, 생산목표 설정, 노동력 배분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허풍방지법은 경제, 농업 생산, 재해 방지, 방역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되며, 기업, 기업소, 협동조합 등 대부분의 생산 주체를 대상으로 한다. 허풍을 치면, 동법에 따라 엄중경고 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 노동, 노동교양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경제난으로 국가 배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당국에 생산량을

부족하게 보고하고 생산물을 은닉하여 장마당에서 현금화하는 행태가 만연하게 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허풍방지법 제정에 앞서, 2021년 3월 전원회의에서 ‘농업 부문의 뿌리 깊은 허풍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는 말로 간부들을 질책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에 허위보고가 만연해 있고, 이들이 통계를 국가 운영의 핵심 요소로 인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처럼 통계는 국가 운영을 위한 중요 요소로 활용되고 있지만, 북한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도국은 통계역량이 부족하여 통계를 수집, 생산,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의 접근 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통계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및 국가발전계획(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DS)과 같은 거시적인 정책부터 프로젝트의 계획, 집행, 평가 및 모니터링과 같은 미시적인 사업 분야에서, 통계는 개발협력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통계 자료는 경제·사회의 발전 수준이 유사한 국가 간 차이를 비교하고, 각 개도국의 취약 분야를 도출하는 자료로 쓰이고 있다. 다시 말해, 개도국이 국제사회의 원조를 보다 많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세계은행, 유엔통계국(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UNSD)을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는 개도국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 북한의 경우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유엔인구

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등의 지원을 받아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사실상 국가통계 공개를 중단한 북한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북한의 정치적 판단, 대북제재, 코로나 감염증(COVID-19)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다자협력을 활용하여 통계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개발협력에 있어 통계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검토하고, 역량과 역량개발에 관한 개념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통계역량 강화와 관련된 주요 의제의 발전과정을 검토하여, 북한 통계역량 강화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통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개인, 조직, 사회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II. 개발협력과 통계역량 강화

‘통계(statistics)’는 라틴어로 국가, 상태를 의미하는 status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이의 파생어인 라틴어의 통치자(statistica)란 말이 사용되었던 것을 보면, 통계가 국가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적인 의미로 통계는 ‘어떠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표현한 것’을 뜻한다. 이와 유사한 단어인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의 집합으로 숫자, 문자, 이미지, 사운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수집 또는 기록된 기본적인 정보로서 아직 분석되거나 해석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통계는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 해석하여 의미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데이터의 패턴, 추세, 관계 등을 찾아내기 위해 이를 요약하거나 설명하는 도구와 기술도 포함한다. 즉 날씨, 주식, 성적 등의 정보가 단순한 숫자로 표현된 것이 데이터라면, 통계적 분석을 거쳐 이를 평균 기온, 주가 전망, 성적 분포 등으로 나타낸 것은 통계라고 할 수 있다.

통계는 국가 운영뿐만 아니라 공여국과 수원국의 개발협력 정책을 계획, 실시, 모니터링, 평가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개발협력 정책은 글로벌 차원의 장기적인 목표, 국가별 지원 전략 및 목표, 분야별 이니셔티브 및 사업 계획 등으로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¹⁾, 정확한 통계 데이터는 국제기구나 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식량,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allocation)하기 위해 통계가 필요하다. 예컨대 통계는 어떤 지역이나 집단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를 설정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통계는 모니터링과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feedback)를 통해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준치

1) 예를 들어, 글로벌 차원의 정책에는 국제사회가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SDGs가 있고, 국가별 전략에는 수원국의 빈곤감축계획(Poverty Reduction Strategic Programme, PRSP), 국가별 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국가발전계획(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DS)이 있다. 공여국 및 공여기관은 개발협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 분야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도 한다.

(baseline), 중간치, 목표치, 결과치 등의 통계가 필요하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지원 대상이 도움을 받았는지, 프로젝트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투명성과 책임성이다. 통계 데이터는 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개적으로 타 공여국 정부나 원조 실시기관이 어떻게 자원을 사용했는지에 관해 논의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 강화이다. 데이터의 공유·분석을 통해 통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참여하여,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요컨대, 수원국 입장에서 통계는 공여국의 지원을 더 많이 효율적으로 받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역량(capacity) 및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과 관련해 UNDP, OECD,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는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²⁾ 이 개념들은 하나로 정의되지 않은 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에 따르면³⁾, 역량이란 개인, 조직, 사회 전체가 업무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며, 역량개발이란 개인, 조직, 사회가 스스로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역량을 획득,

2) European Parliament. "Understanding capacity-building/capacity development A core concept of development policy", 2017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7/599411/EPRS_BRI\(2017\)599411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7/599411/EPRS_BRI(2017)599411_EN.pdf)> (검색일: 2023.8.16.).

3) UNDP. Capacity Development Practice Note, 2008. <https://www.undp.org/sites/g/files/zskgke326/files/publications/PN_Capacity_Development.pdf> (검색일: 2023.8.16.)./UNDP <<http://undp.org>>

강화, 유지하는 과정을 말한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서는 역량개발을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과 유사한 개념으로 종종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이 두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다. 역량구축은 기존의 능력이나 지식을 확장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특정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과정을 뜻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술에 관한 교육을 받거나 자원을 제공받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역량개발은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개인, 조직, 사회가 능력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역량개발은 기존의 능력을 활용하고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그리고 개인, 조직,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주목한다. 요컨대, 기존의 역량구축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역량개발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Ⅲ. 국제사회에서의 통계역량 의제의 변화

통계협력은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발전, 원조효과성, 수원국의 주인의식, 책무성, 모니터링과 평가 등이 강조됨에 따라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통계협력이 모든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프로젝트를 계획, 실행, 평가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에서 통계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통계협력의 방향성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통계관련 이니셔티브의 태동

통계협력의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의제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공여국의 원조 예산은 1980년대말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1990년대부터는 예산이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소위 원조피로(aid fatigue)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원조피로 현상은 냉전 종식으로 인해 원조가 진영 확장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필요성을 상실하면서 나타났다. 이때 공여국의 재정 악화 및 경기 후퇴가 원조예산 증액의 걸림돌이 되고, 수원국의 발전도 공여국의 기대 이하로 진행되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이는 ‘퍼주기식 원조’의 회의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자, 개도국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빈곤감소전략프로그램(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PRSP)을 요구하게 되었다. PRSP는 IMF와 세계은행이 자금 지원에 앞서, 과다채무빈곤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의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명시한 문서인데, 여기서 통계가 개발목표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빈국의 경우 과거 수십 년 동안 통계를 위한 기술협력과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관련 성과가 미미하였다. 개도국은 증거기반 접근 방식(evidence based approach)에 대응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도국의 통계역량 부족은 비단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지 못하는 문제에만 국한되어 적용되지 않았다. 개도국은 스스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발전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근본적으로 빈곤이 개선되지 않았고, 원조를 받더라도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에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다.

한편,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채택되면서 통계 분야도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 국제개발협력의 접근 방식과 차별화되는 MDGs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8개의 목표(goal), 18개의 세부 목표(target), 48개의 지표(indicator)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⁴⁾ 예를 들어, 목표 1번 ‘절대빈곤 및 기아근절 달성’의 경우 세부 목표 1번에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하루 소득 1.25달러 이하의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 소득 1.25달러 미만의 인구 비율과 같은 실제 수치가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처럼 통계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새롭게 제시되는 개발목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199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유럽연합통계국(European Statistics, Eurostat), IMF, UN, 세계은행은 통계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의 결과로 ‘21세기 개발을 위한 통계 파트너십(Partnership for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PARIS21)’을 설립하였다. PARIS21은 위에서 살펴본 개발협력에 있어 통계의 역할에 주목하여, 개도국의 국가 통계

4) UN “Indicators for Monitor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ttps://www.ndp.org/sites/g/files/zskgke326/files/publications/Indicators_for_Monitoring_the_MDGs.pdf> (검색일: 2023.9.15.).

시스템을 강화하고 데이터 생산 및 사용을 촉진하여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PARIS21은 데이터 사용자, 생산자, 정책결정자, 공여자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도국 스스로 국가통계 발전 전략(National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Statistics, NSDS)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PARIS21의 활동을 위해 개발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되었다는 사실이다. 세계은행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신탁기금(Trust Fund for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TFSCB)'은 PARIS21의 활동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뒷받침하였으며, 한국도 이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PARIS21은 개도국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지식 공유, 새로운 통계 수요에 대응 가능한 솔루션 개발, 주요 국제기구 등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이를 통해 통계의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즉 빈곤을 측정하는 사회적 데이터가 경제적, 재정적 데이터보다 주목받게 된 것이다. MDGs의 48개 지표는 교육, 보건, 빈곤 등에 주목하였고, 관련 데이터 수집 방식도 설문조사 방식까지로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가 '인구통계 건강조사(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DHS)'⁵⁾와 '다중지표군집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MICS)'⁶⁾이다. 영유아 사망률과 예방 접종률은 이 과정에서 새롭게 주목받게 된 통계 데이터로서 개도

5) '인구통계 건강조사(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DHS)'는 USAID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도국의 인구, 건강, 영양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모니터링 및 영향 평가 지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가구 설문조사이다.

6) '다중지표군집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MICS)'는 UNICEF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개도국의 아동과 여성에 특별히 주목하는 대면 인터뷰 방식의 조사이다. MICS는 표준 지표를 도입하여 조사 대상국들 간 데이터를 비교 가능하게 하며, 1990년대 중반 이후 6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국의 빈곤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요컨대, 통계의 역할은 개발협력의 접근 방식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통계 종류가 다양해지고 관련 조사 방식도 확대되었으며, 개도국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었다. 개도국의 통계역량은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변화는 이들의 빈곤 감소와 경제 개발에 있어 데이터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통계협력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발전

2002년 3월 몬테레이 UN개발재원 국제회의에서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빈곤 감축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및 행동을 강화하고, 선진국의 원조 확대 및 효과적인 원조 제공과 함께 보다 일관성 있는 무역 및 기타 개발 관련 정책 추구를 통해 개도국의 개발을 지원하고자 일련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합의하였다.⁷⁾ 이를 바탕으로 OECD DAC와 다자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미주개발은행(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 IDA) 세계은행은 개발 협력에 있어 통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통계를 위한 마라케시 행동계획(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 MAPS)을 채택하였다. MAPS는 ‘개별국가 단위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책임’으로

7) 장현식,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의 의미와 우리의 향후 추진 방향” 『국제개발협력』 2007년 4호, 2007. pp. 39-40.

분야를 나누어 각각 3개의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2006년까지 통계 시스템의 전략 계획을 확산하고 모든 저소득 국가를 위한 국가 통계 개발 전략을 준비, 둘째, 2010년 인구 총조사에 대비, 셋째,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 확대, 넷째, 국제 가구조사 네트워크 구축, 다섯째, 2005년까지 MDGs 모니터링을 위한 긴급조치 실시, 마지막으로 국제 통계 시스템의 책임성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⁸⁾ MAPS는 MDGs 출범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자라 할 수 있는 OECD DAC와 주요 세계은행을 비롯한 주요 다자개발은행들이 개발 성과의 객관적인 평가와 측정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실질적인 행동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MAPS는 개도국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해 수원국의 주인의식에 기초한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 기초한 통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공유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0년대 초반, MDGs의 채택, PARIS21을 통한 통계협력, MAPS 채택 등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일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통계역량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았다. 2009년 PARIS21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계시스템이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MDGs 달성을 위한 긴급 조치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통계 개발을 위한 다카선언(Dakar Declaration on the Development of Statistics, DDDS)’을 채택하였다. DDDS는 공식 통계가 공공재의 일종이며, 모든 정부의 핵심적인 요소

8) World Bank, “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 2004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493571468279866267/pdf/840610WP0Marra0Box0382094B00PUBLIC0.pdf>> (검색일: 2023.7.1.).

라는 점을 강조하며 5가지의 행동계획을 촉구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지속 가능한 자원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전략계획을 준비 및 실시, 둘째, 글로벌 통계 프로그램 구축, 셋째, 모든 층위에서 효율적인 정책 조율, 넷째, 사용자의 요구(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통계 시스템의 수립, 마지막으로 개도국의 통계 기술 현대화를 위한 R&D 지원이다.⁹⁾ MAPS가 구체적인 목표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DDDS는 모든 행동계획의 기한을 2014년까지로 설정하였는데, 그 까닭은 MDGs의 목표 기한이 2015년까지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세부 행동계획에 ‘통계 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Statistics, NSDS)’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NSDS는 통계의 생산, 보급, 확산을 위한 역량 개발과 관련된 전략으로, 국가통계시스템(National Statistical System, NSS)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통계역량을 포괄적이고 조화롭게 개선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역량 강화에 있어 NSDS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개도국이 NSDS에 기반한 통계역량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있다. 2023년 1월 기준 저소득 개도국을 지원하는 세계은행과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중하위 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ies)은 총 75개국이다. 이들 국가 중 NSDS를 현재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42개국(56%)이고, 현재 수립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국가는 5개국(7%), 만료 혹은 현재 수립 중인 국가는 19개국(25%), 만료 혹은 도입 계획이 없는 국가는 9개국(12%)인

9) PARIS21, “Dakar Declaration on the Development of Statistics”, 2009
 (<<https://www.paris21.org/sites/default/files/DDDS-en.pdf>> (검색일: 2023.7.1)).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⁰⁾ 즉, 중하위 소득국의 88%가 NSDS에 따라 통계역량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통계가 개발협력의 당위적인 목표의 일부가 아니라, 공여국의 원조를 얻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이를 위한 지원 방식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프로젝트의 형태가 아닌,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에 기반한 프로그램의 형태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3. SDGs 시대의 통계협력 이니셔티브

2015년 국제사회의 SDGs 채택은 통계의 역할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SDGs가 기존 개발목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개발목표를 측정하는 지표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MDGs에서 SDGs로 전환되면서, 각 목표를 측정하는 지표는 48개에서 236개로 대폭 증가하였다.¹¹⁾ 이는 개발협력의 관심 분야가 확대되고 세분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데이터의 세분화는 평균치보다 분배에 초점을 두었을 때 나타나므로, SDGs를 통해 소득, 성, 인종, 민족, 이민 지위, 장애, 지역 등에 따라 세분화된 통계를 생산하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저소득층, 여성, 어린이, 노인, 이민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가시화하여 이들을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끌어내려 한다는 것이다.¹²⁾ 국제

10) PARIS21, “NSDS Summary Table for IDA and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https://paris21.org/sites/default/files/inline-files/NSDS_Summary_Table_2023_01.pdf) (검색일: 2023.7.1).

11) SDGs의 모든 지표는 다음을 참조. UN Statistics Division, “SDGs Indicators”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indicators-list/>) (검색일: 2023.7.20.).

12) 박영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과 통계의 역할” 『조사연구』제 18권 3호, 2017, pp.91.

사회가 세부적인 데이터에 주목하는 까닭은 국가 단위의 평균치가 반영하지 못하는 개인의 불평등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SDGs는 개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론, 회원국들 간의 데이터 이용 가능성 차이를 반영하여 총 세 가지로 지표를 제시한다.¹³⁾ 또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하나의 독립된 목표로 설정한다는 것이 SDGs의 특징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SDG 17의 경우 ‘글로벌 파트너십’이 목표로 세워진 후 개발자원, 기술, 역량 강화, 제도가 세부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여기에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되었다.¹⁴⁾

세계 데이터 포럼(UN World Data Forum)은 데이터 혁신을 촉진하고 파트너십을 육성하며, 데이터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동원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더 나은 데이터를 위한 경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¹⁵⁾ 포럼에서는 데이터와 통계에 관한 논의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계획을 명시하는 선언들을 채택해 왔다. 그중, ‘케이프타운 글로벌 행동 계획(Cape Town Global Action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ata,

13) Tier1은 데이터 측정 방법론 및 국제적 기준이 존재하고 정기적으로 데이터 생산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지표이고, Tier2는 데이터 측정 방법론 및 국제적 기준은 존재하나 지속적인 데이터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표이며, Tier3은 데이터 측정 방법론 및 국제적 기준 자체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가장 완성도가 낮은 지표를 말한다. UN Statistics Division,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tier-classification/>) (검색일: 2023.7.20.).

14) SDGs에서 통계역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부 목표에는 ‘17.18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인종, 민족, 이민 이주 상태, 장애 상태,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 지원.’과 ‘17.19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보안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성과 측정치 개발에 대한 기존의 노력을 발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개발을 지원.’이 있다.

15) UN World Data Forum. (<https://unstats.un.org/unsd/undataforum/about/>) (검색일: 2023.8.1.).

CTGAP)’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향한 진전의 측정에 필요한 모든 범위의 보고 및 모니터링을 확립하기 위해 통계 및 데이터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관해 논의한 첫 번째 UN 세계 데이터 포럼에서 시작되었다.¹⁶⁾ 세계 데이터 포럼에서는 2018년 ‘두바이 선언(Dubai Declaration)’을 통해 CTGAP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에 대한 글로벌 데이터 커뮤니티의 대응(Global Data community’s response to Covid-19)’과 2021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실행 10년을 위한 베른 데이터 협약(Bern Data Compact for the Decade of Action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통해 공식 통계와 국가통계청(National Statistical Offices, NSOs)이 코로나 19 감염증 팬데믹 상황과 더 넓은 데이터 생태계 전반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뒷받침하는 통계 분야 이니셔티브의 첫 걸음인 CATGAP이 앞서 설명한 MAPS와 개발재원 논의¹⁷⁾의 연장선에서 채택되었음을 고려할 때, CTGAP는 현재 통계 분야의 핵심적인 글로벌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다. 케이프타운 행동 계획은 모든 측면을 다루는 완전성(completeness of scope), 통계청(National Statistical Office)의 책무성(accountability), 국제사회의 주요 이해관계자와 통계청

16) UN Statistics Division, “Cape Town Global Action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ata”, 2017 <https://unstats.un.org/sdgs/hlg/Cape_Town_Global_Action_Plan_for_Sustainable_Development_Data.pdf> (검색일: 2023.7.20.).

17) 국제사회의 ‘개발재원을 위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는 ‘국가 통계시스템은 데이터를 생성, 배포, 관리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시민사회, 학계, 민간 부문의 데이터와 관련 분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간의 협력(cooperation)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6가지의 전략 영역을 [표 1] 케이프타운 행동 계획의 주요 내용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표 1] 케이프타운 행동 계획의 주요 내용

| 전략 영역 | 세부 목표 |
|----------------------------------|---|
| 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조정 및 전략적 리더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통계 시스템 및 국가 통계청의 조정 역할 강화 - 국가 통계 시스템과 국제기구 간 조율 강화 |
| 2. 국가 통계 시스템의 혁신 및 현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 및 제도 강화 - 데이터 표준화 - 신기술의 전략적 사용 |
| 3. 기본 통계 활동 강화 및 SDGs 모니터링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경제, 인구 및 주택조사 등의 강화 - 통합적인 사회, 경제, 환경 통계 작성 - 국민계정 시스템 개선 - 지리공간데이터 활용 - 불평등 감소 |
| 4.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 데이터 보급 및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 개발 |
| 5. 파트너십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학계, 시민사회, 민간 부문 간의 협력 - 국내 - 국제 파트너십 강화 |
| 6.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조달 및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

자료: UN Statistics Division, 2017 <https://unstats.un.org/sdgs/hlg/Cape_Town_Global_Action_Plan_for_Sustainable_Development_Data.pdf>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CTGAP을 비롯한 세계 데이터 포럼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간 통계 분야의 격차를 감소시키고, SDGs가 요구하는 통계분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사회의 통계분야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통계역량 강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는 개발협력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핵심적인 요소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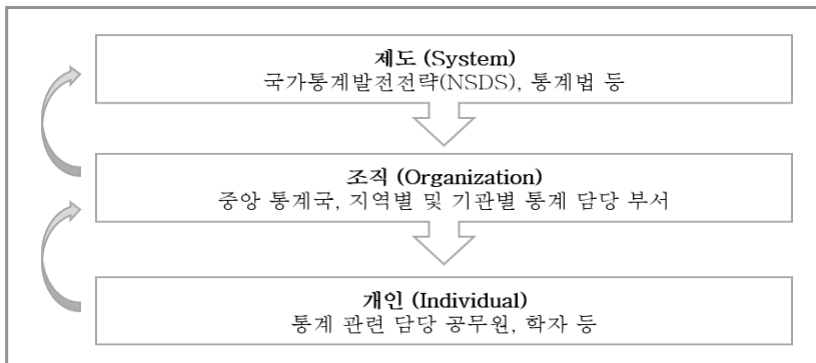
할 수 있다. 통계는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개발목표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통계의 세분화가 이루어졌고, 개발 효과성 및 재원 조달의 측면에서도 통계는 중요한 기초자료로써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통계는 근거기반 정책을 수립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개도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효과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둘째, 국제적 기준에 따라 통계역량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 분야의 통계는 데이터 측정 방법론 및 국제적 기준이 중요하다. 수원국 입장에서는 국내의 분야별 격차를 파악하는 것이 국가발전계획과 같은 정책수립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여국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 된 통계자료가 개도국에 개발재원을 배분함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정치체제 하에서 국가통계를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하였던 북한이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실시한 조사들은 대면조사 방식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긍정적인 정치적 판단이 뒷받침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가 선행된다면, 통계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셋째, 포괄적인 접근이다. 통계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은 일시적, 단기적 지원이 아닌 포괄적인 접근을 지향하고 있다. 개별분야의 통계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통계역량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NSDS를 수립하는 전략적인 지원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통계생산의 주체도 국가에서 민간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활용하는 기술도 지리공간

데이터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통계와 관련된 국제기구, 공여국 및 수원국 정부, 학계, 민간부문까지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IV. 북한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북한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앞서 살펴본 역량의 개념을 적용하면 <그림 1>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통계 분야의 협력 사업은 교육, 연수, 지문 등의 지식공유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역량강화 개념을 적용하여 개인, 조직, 제도 부문을 대상으로 협력방안을 제안한다.¹⁸⁾

[그림 1] 북한의 통계역량 강화



자료: 저자 작성

18) 본 장은 PARIS21의 역량개발 4.0 프레임 매트릭스를 참조하여 작성. PARIS21. Guidelines for Developing Statistical Capacity: A Road map for Capacity Development 4.0, 2020, p. 11.

1. 개인

개인은 통계를 담당하는 일선 부처의 직원, 공식 일선 부처의 직원, 공식 통계를 담당하는 중앙통계국 관리자 등 소속 조직 및 직급이나 직위와 무관하게 중앙통계국을 위해 일하는 한 사람이 해당된다. 북한은 당과 내각에 생산 실적을 보고하는 기업소의 담당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은 교육과정에서 습득하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경영 등과 실무 경험을 통해 얻은 국민계정, 빈곤, 보건,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다. 세부적인 기술로는 통계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Stata, R, SPSS 등의 표준 통계에 관한 소프트웨어 사용법도 지식공유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량적인 기술 이외에도 커뮤니케이션과 협상기술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가구 단위의 통계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대면 방식의 설문조사도 있기 때문에 조사원의 소통능력도 중요시 되고 있다. 시간관리와 우선순위 설정은 통계관련 전문지식을 효율적인 관리에 요구된다. 중간관리자는 대다수의 조사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표, 우선순위, 자원배분, 관련조직과의 협업과 같은 능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통계역량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는 위와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새로운 업무를 담당할 기회 혹은 승진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 조직

조직은 통계분야를 총괄하는 중앙 통계국, 지역별 및 기관별 통계담당 부서가 해당된다. 조직에 대한 역량 강화는 조직원에 대한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통계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인구조사와 같은 대규모 조사를 실시할 경우, 설문 조사원에 대한 경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물적 자원에는 통계 관련 소프트웨어와 저장장치 및 정보처리를 위한 컴퓨터 등도 해당된다. 통계 조직이 생산하는 결과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조직의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통계 품질관리를 위한 방법론, 내규와 같은 조직 관리능력도 중요한데, SDGs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제도

제도는 NSDS와 통계법 등 통계를 운영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를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예산, 기존의 데이터 등이 해당된다. 특히 NSDS는 제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NSDS란 통계를 생산, 가공, 분석하여 개별국가의 국가발전계획, SDGs 이행현황을 비롯한 국제적인 요구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관련 국제기구가 개별국가의 NSDS를 설계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NSDS는 국가통계 시스템(National Statistical System)을 개선하여, 개별국가의 정책수립에 기여할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기관이 원조를 실시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PARIS21은 개도국이 NSDS를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NSDS는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에 해당되는 전략문서이며,

로드맵, 전략 혹은 행동계획, 중기평가, 최종평가로 구성된다.¹⁹⁾ NSDS는 통계 관련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정책입안자, 개발협력 파트너, 데이터 사용자 등에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국가의 경우, NSDS 작성에 약 6-12개월이 소요된다.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NSDS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데,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과거 북한이 국제기구의 통계조사를 수용한 사례를 돌이켜 보면, 현대적인 통계조사의 방식을 도입하였을 경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지원뿐 아니라, 정책수립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타 개도국에서 NSDS를 활용하여 증거기반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은 사례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정치적 민감도가 낮은 보건·의료, 교육, 성평등과 같은 분야, 혹은 에너지, 교통과 같은 경제인프라 분야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거시경제와 같이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북한의 다자협력을 활용하여 통계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19) 최근 NSDS 문서의 사례는 다음을 참조, PARIS21, “NSDS Documents” (<<https://paris21.org/NSDS-Documents>>)(검색일: 2023.9.18.).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통계는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발전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며, 개도국의 부족한 통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개도국의 통계역량은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도전과제들을 남겨놓고 있다. 한편, 과거와 달리 통계의 분야가 확대되고 조사대상이 세분화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통계역량과 개도국의 현실간의 간극은 점점 확대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폐쇄적인 정치체제로 인해 공식적인 통계발표는 상당기간 중단된 상태이며, 통계가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수용성이 낮을 수도 있다. 국제사회가 대다수의 개도국을 지원한 방식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는 없다. 다만, 긍정적인 전례도 분명히 존재한다. 북한은 과거 WFP, UNICEF, WHO, UNFPA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대규모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가 포함된 인구조사, 다중지표군집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MICS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UNESCAP의 지원으로 UN SDGs 이행에 관한 VNR을 작성하였고, 여기에는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았던 통계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발표되었다.

과거 국제기구의 통계협력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장기간 지속되었던 북한의 경제상황도 일정부분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장기화되는 대북제재로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과 연계하여, 북한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공유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통계역량 강화는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라는 단편적인 이익뿐 아니라 증거기반 정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며,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포함한 민생경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박영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과 통계의 역할” 『조사연구』 제18권 3호, 2017.
- 장현식.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의 의미와 우리의 향후 추진 방향” 『국제개발협력』 2007년 4호, 2007.

〈해외문헌〉

- European Parliament. Understanding capacity-building/capacity development A core concept of development policy, 2017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7/599411/EPRS_BRI\(2017\)599411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7/599411/EPRS_BRI(2017)599411_EN.pdf)> (검색일: 2023.8.16.).
- PARIS21. “Dakar Declaration on the Development of Statistics”, 2009 <<https://www.paris21.org/sites/default/files/DDDS-en.pdf>> (검색일: 2023/7.1.).
- _____. Guidelines for Developing Statistical Capacity: A Road map for Capacity Development <https://paris21.org/sites/default/files/inline-files/UNV003_Guidelines%20for%20Capacity%20Development%20PRINT_0.pdf> (검색일: 2023.7.1.).
- _____. “NSDS Documents” <<https://paris21.org/NSDS-Documents>>

(검색일: 2023.9.18.).

UN “Indicators for Monitor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ttps://www.undp.org/sites/g/files/zskgke326/files/publications/Indicators_for_Monitoring_the_MDGs.pdf〉(검색일: 2023.9.15.).

UN Statistics Division, 2017 〈https://unstats.un.org/sdgs/hlg/Cape_Town_Global_Action_Plan_for_Sustainable_Development_Data.pdf〉 (검색일: 2023.9.15.).

_____. UN Statistics Division, “Cape Town Global Action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ata”, 2017 〈https://unstats.un.org/sdgs/hlg/Cape_Town_Global_Action_Plan_for_Sustainable_Development_Data.pdf〉 (검색일: 2023.7.20.).

_____.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tier-classification/>〉 (검색일: 2023.7.20.).

UN World Data Forum, 〈<https://unstats.un.org/unsd/undataforum/about/>〉 (검색일: 2023.8.1.).

UNDP, Capacity Development Practice Note, 2008, 〈https://www.undp.org/sites/g/files/zskgke326/files/publications/PN_Capacity_Development.pdf〉 (검색일: 2023.8.16.).

World Bank, “The Marrakech Action Plan for Statistics”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493571468279866267/pdf/840610WP0Marra0Box0382094B00PUBLIC0.pdf>〉 (검색일: 2023.7.1.).

Leveraging Multilateral Cooperation to Develop North Korea's Statistical Capacity

Woochul, Kang (Korea Eximbank)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plore how statistical capacity in North Korea can be strengthened by utilizing multilateral cooperation. As a theoretical exploration, it examines the concepts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tatistical capacity and analyzes the evolution of key statistical discussions and initiativ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atistics has moved from a peripheral to a central compon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development cooperation approaches have evolv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launched global consultations to strengthen statistical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established trust funds as a financing mechanism, and set guidelines for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In response, most developing countries have adopted National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Statistics to systematically strengthen their statistical capacity. To apply the international debate to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ities of the system, political sensitivities, and sanctions. This paper proposes the direction and main contents of knowledge sharing at the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levels as a way to strengthen statistical capacity in North Korea. Strengthening North Korea's statistical capacity needs to take into account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public sentiment. Strengthening statistical

capacity will not only contribute to the short-term benefits of expanding international support, but also to efficient policy design and to improve the civilian economy, including the livelihoods of North Koreans.

